

‘굿바이 전남도립대’… 마지막 학위수여식 ‘눈길’

390명 졸업생 배출… 호텔조리제빵과 등 36명 표창
내달 목포대와 통합… 미래형 국립대 자리매김 기대

전남도립대학교가 대학 명의로는 마지막 학위수여식을 열고, 390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다.

3월 1일 국립목포대학교와의 통합을 앞둔 가운데, 이번 졸업생들은 전남도립대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받는 마지막 세대이다. 통합대학 출범을 앞둔 전환기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5개 학과에서 전문학사 376명과 전공심화과정 학사 14명 등 총 390명이 학위를 받았다.

도 전체 수석인 강정미 학생(호텔조리제빵과)을 비롯해 총 36명의 학생이 전

남도지사상, 전남도의회 의장상 등 각종 표장을 수상하며 학업 성취를 인정받았다. 특히 호텔조리제빵과를 비롯해 보건·복지·산업계열 등 지역 수요와 맞닿은 학과 졸업생들이 다수 수상자에 포함되며,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을 강조해온 전남도립대의 교육 성과를 보여줬다.

윤진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번 졸업생은 전남도립

대학교 명의로 학위를 받는 마지막 졸업생인 동시에, 새로운 통합대학의 미래를

증명하는 첫 세대”라며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곧 대학의 성과이자 가능성으로,

지역과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학생들



전남도립대학교는 최근 학생문화복지관 아트홀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5개 학과에서 전문학사 376명과 전공심화과정 학사 14명 등 총 390명이 학위를 받았다.

의 학습권과 졸업 요건, 교직원의 신분과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행

학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열린 마음으로 소통… 공정·투명한 지회 운영”

이재수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허리케인 광주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시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경숙 중앙회 이사장, 임홍근 중앙협회 회장, 구정자 주광주중국총영사 외 영사, 각 지역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재수 신임 회장(사진)의 취임식과 이경보 전임 회장의 이임식이 이뤄졌다. 이 신임 회장은 이 전임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경보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허리케인 광주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시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과 성과를 충실히 계승·발전시켜 지회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했다.

이어 “지회의 발전은 회원 모두 참여와 열정이 모일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지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한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지난 2006년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째를 맞았다. 전국 12개 지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민간 교류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교육·문화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

광주문화재단-승의과기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우)은 최근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박성우)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지역 문화산업을 연결하는 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분야 중심 학습 운영 자문,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취업 연계를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으로

정채경 기자 view2018@

동구 지산2동, 설 맞이 환경정비 구슬땀

주민자치회·통장단 등과 일제 대청소

광주 동구 지산2동은 최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복마을 대 청소하는 날’을 진행했다.

이번 대청소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산2동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사랑체운영협의체·새마을부녀회

• 통장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투기가 짖은 청소 취약지 를 중심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나咎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

신영순 지산2동장은 “주민들이 내 집



광주 동구 지산2동은 최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복마을 대 청소하는 날’을 진행했다.

앞을 치우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마을이 한층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산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제시판

일정 △ 1월 15일 정기집회(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변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듣는 사람들을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 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 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온세 (음력 12월 22일)

48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60년생 뜻밖에도 고관한 신분의 방문이 있을 것
72년생 여친이 숨진 이동수 있다
84년생 부부싸움 흰발 양보하라
96년생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삼가야

51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만도다
63년생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불안할 정도
75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87년생 오랜 연애로 이뤄진다
99년생 간절히 바라는 일에 큰 기대 마라

54년생 금전 회전이 용이해지는 운
66년생 소원이 이뤄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78년생 노불 조심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90년생 연인에게 말을 조심하라

57년생 환경 국복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
69년생 막연히 비교하지 말라
81년생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뤄진다
93년생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해라

49년생 건강 검진하라
61년생 숙원 사업이 드디어 해결되리라
73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85년생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삼가야
97년생 후배와 다퉜면 다칠 수 있다

52년생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64년생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76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침으로
88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득이다

55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67년생 직장내 구설수를 조심하라
79년생 종일 노력해도 얻어지는 보람이 없다
91년생 구설수로 다를 수 있으니 말조심하라

58년생 자녀일에 불화가 생겨 갈등 겪는 날
70년생 무리한 계획이 아니면 성공한다
82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리라
94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봐라

50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
62년생 자녀의 혼담이 무르익을 운
74년생 이익을 입에 두고 의리를 생각하라
86년생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익
98년생 혼인이 빚어질수도 있다

53년생 스트레스 사라지고 긍정운 트인다
65년생 기꺼운 사람일수록 악속을 잊지마라
77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89년생 요청이 따르는 허루가 될 수 있다

56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68년생 기다리기 전하면 즉시 속도를 내라
80년생 금전 문제로 고통이 따르리라
92년생 숨은 능력을 대로 발휘할 때 됐다

58년생 제3자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게 좋다
71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산이 먼저다
83년생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95년생 기운이 길하니 실행하면 성공한다

장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작명



장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작명